

中 지방정부, 올 성장목표 5~6%... 하이난 9.5% '낙관적'

● 차이나 뉴스&리포트

올 경제성장목표 줄줄이 상향
광둥·산둥·저장성 '5%이상' 제시
목표치 6% 이상인곳 10곳 달해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줄줄이 높여 잡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렸다.

지금까지 당대회를 소집해 논의를 마친 지방정부들이 올해 성장 목표로 평균 5~6%를 제시했고, 자유무역항으로 개발 중인 하이난은 가장 높은 9.5%로 목표를 잡았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지금까지 26개 지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

경제규모 기준으로 중국의 5대 성 가운데 광둥성과 산둥성, 저장성 등은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에서 사람들이 새해를 위한 장식물을 고르고 있다. /신화·뉴스시

'5% 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으며, 허난성은 연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약 6% 달성이 목표다. 장쑤성만 아직 지방 당대회를 열지 않아 목표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오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협

상회의)가 열려야 알 수 있겠지만 지방 정부들이 제시한 수치는 이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 지표다. 지방 정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소비와 제조업 투자 등을 촉진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혁과 분배'보다는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키로 한 바 있다.

작년 대규모 도시 봉쇄로 경제가 부진했던 상하이에는 약 5.5% 성장을 계획했으며, 지방정부 가운데 목표치를 6%까지 높인 곳도 10곳이나 됐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가장 낮게 설정한 곳은 텐진으로 4%이며, 최남단의 하이난은 가장 높은 9.5%로 제시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현재 5% 안팎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6%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포럼을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GDP 성장률이 6%에 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경제 순환 가속과 안정 회복, 국제수지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대확산으로 1분기 성장률은 4.2%에 그치겠지만 2분기 큰 폭으로 반등하는 '역 U자형'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소비가 될 것으로 봤다. 중국 민간 항공국은 지난해 국내 항공 수송량이 2019년 같은 기간의 63%로 회복됐다고 발표했다.

ING 아이리스광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에는 소비자들은 일반 쇼핑보다는 의료 서비스에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전반적인 소비심리는 위축될 것"이라며 "올해 첫 3개월 동안은 소비 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는 17일 2022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당초 작년 성장률 목표로 '약 5.5%'를 제시했지만 시장 전망치는 이에 크게 못미치는 3% 안팎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올 부동산 투자증가율 7.5% ↓ '경제 발목'

한은, 中 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응
부동산개발기업 72곳 작년 상반기
순이익 670억, 전년비 62% 줄어

올해 중국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위험이 소비심리를 낮추면서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감소시킬 것이라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

대응 및 평가'에 따르면 올해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증가율은 5~7.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기업 부실위험 ↑

중국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자산효과를 내고 있지 못해서다. 중국의 가계자산 중 60%는 부동산이다. 부의효과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민간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의효과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실제 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그 반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말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 판매면적과 주택가격, 신규 착공면적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개발기업 72곳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1조9000억위안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고, 순이익은 670억 위안으로 62.5%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기업 상당수는 3대 레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해 신규차입 규제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20개

부동산 개발기업 중 3대 레드라인을 준수한 기업은 7개 기업(35%)이었다.

3대 레드라인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 70% 초과금지 ▲순부채율 100% 초과 금지 ▲유동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배 이상 많으면 안 된다는 규제 조항이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합부양책을 통해 정책개입규모를 확대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관련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대출만기를 1년 연장했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소비자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완공지연 주택이나 코로나로 실직

한 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을 연장하고, 금리를 하향조정했다.

다만 한은은 중국의 부양조치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단기간에 이끌어내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위험을 완화할 수 있지만 소비심리를 개선해 부동산시장 반등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종합부양책은 상당한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지원조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부동산 개발기업도 추가인수를 위한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금지원 대책이 없다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더뎠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새해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제조원 및 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정관기능식품입니다]

설맞이 사은행사

2023.1.2 ~ 1.25 ※ 대상 채널: 가맹점, 직영점, 농협

- ① 구매금액 10만원당 1만원 할인 ※일부 품목 제외
- ② 선물용 제품 5~20% 할인 ※일부 품목 제외
- ③ 신규가입 시, 5,000포인트 즉시적립 ※단, SMS 수신동의 및 5만원 이상 구매시(1인회 한정)

정관장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기밀 보관하는 매장 픽업
민물대신 정수 정물 배송
소중한 편지에 특별 포장